

#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 Lonelines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Peer Experiences and Attachment to Parents

도현 심\*\*

Doh, Hyun Sim

### ABSTRACT

Loneliness in adolescence was examined in relation to peer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to parental attachment with sample of 426 eighth graders in a suburban city. The subjects rated themselves on questionnaires regarding attachment to parents, peer experiences, and loneliness.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was also rated by peers. In both boys and girls, the more they were attached to parents, the less loneliness they experienced. The more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they experienced from peers, the more loneliness they experienced. Lonely adolescent girls had lower attachment to parents and higher self-rated victimization by peers.

### I. 서 론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성장 해온 아동은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또래간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스스로를 노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쉽다(Brennan, 1982). 외로움은 청소년들 가운데 20~50%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이 시기에

흔히 보여질 수 있는 대인관계상의 문제이다(Brennan, 1982; Ostrov & Offer, 1978). 그러나, 이러한 발달 단계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학령기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전기 아동에까지 그 대상연령을 확대시킨 연구들이 점차 보고되고 있다(Asher, Hymel, & Renshaw,

\* 이 논문은 199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지원됨.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1984; Asher, Parkurst, Hymel, & Williams, 1990; Asher & Wheeler, 1985).

특히 국내의 경우,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연구들(정영인, 1988; 도현심, 1996a; 1996b)을 제외하고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게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최근 들어 초등학교 3-6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보가와 임지영, 1999)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현심, 1998; 박선영과 도현심, 1998)가 보고되는 정도이다.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쌓일 때 청소년들은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등의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며 심하게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Gilbert & Deblasse, 1984; Kaiser & Berndt, 1985; Muuss, 1986; Tabachnick, 1981)에 근거해 볼 때,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여러 행동특성 및 발달과 마찬가지로, 외로움 역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지만, 이 시기에도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대의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개체로서의 분리를 추구하면서도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직업 선택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부모의 조언을 받고자 하며, 우울하거나 불행하게 느껴질 때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꼽는 것(Marcoen & Brumagne, 1985)으로 보고된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전의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하여 설명

될 수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특히,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을 의미하는 외로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애착을 연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외로움이 애착 대상의 부재에 의해 생성되는 한,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착체계에 대해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Weiss, 1982). 이는 또한 외로움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결국은 애착이론적 측면에서 외로움을 해석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착관계는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며, 청소년기에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감정은 청소년의 복지감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Greenberg et al., 1983). Bowlby(1969; 1982)가 결론지었듯이, 어느 연령에서든지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때 가장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전 생애를 통해 애착은 두려움이나 질병 등의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 혹은 접촉을 추구하려는 행동 성향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처럼 애착 대상에게 접근을 추구하는 행동은 좀더 약화되고 그 빈도도 덜해지며, 전화나 편지와 같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위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자녀관계를 초점으로 하여 외로움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다. 몇 편 안 되는 연구들 중에, Shaver와 Rubenstein(1980)은 부모-자녀관계가 빈약할 때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양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도 부모와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그러한 관계를 가진 청

소년들보다 대학생활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jat, 1982). 최근 들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울증 및 불안감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Allen, Moore, Kuperminc, & Bell, 1998)도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그들의 정서상태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청소년들이 현재 부모에 대해 느끼는 애착이 그들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진한 현재로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외로움을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기대된다.

부모-자녀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외로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외의 경우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어 외로움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것은 외로움 자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므로 개인의 사회적 특성은 외로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외로움에 있어 그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Chelune, 1977; Jones, Freeman, & Goswick, 1981;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또래 경험적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두어 외로운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소극적 혹은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elune, 1979; Jones et al., 1981; Russell et al., 1980; Solano & Parish, 1979). 이러한 결과는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의 결과(도현심, 1996a)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

는 것과 같은 대인적응성의 부족은 아동의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또래수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소외되기가 쉽게 때문에, 또래관계가 보다 더 활발해지는 청소년기에 이러한 아동들은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 국외의 경우와 달리 부진한 국내의 연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기술의 부족에 속하는 또래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공격성 외에도 1990년을 전후하여 국외에서 관심이 대두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의 개념을 또래경험의 또 다른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또래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또래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즉 또래학대(peer abuse)의 형태"를 의미하며(Olweus, 1991) 문맥에 따라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이라는 용어로도 혼용되는 개념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Perry, Kusel, & Perry, 1988). 즉, 또래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고 부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쉽다(Boulton & Underwood, 1992; Perry et al., 1988). 이렇게 볼 때,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각각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을 낳는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적인 행동을 의미하지만,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국내 연구들(도현심, 1998; 최보가와 임지영, 1999)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최보가와 임지영(1999)에서 직접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방법들이 사용

되는 명백한 괴롭힘과 고의로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관계적 괴롭힘(예: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또래폭력과 같은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어느 연령층보다도 특히 중학생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 시점에서 이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양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와 더불어,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 및 적응의 결정요소로서 가족 체계와 또래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근거한 것이다. Furman과 Buhrmester(1985)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과 초기 청소년들은 가족과 또래 모두로부터 사회적 지지, 친밀감, 격려, 애정 및 의존성 등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험은 가족과 또래라는 서로 다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그 내용상 상당히 중복적이다. 따라서, 가족과 또래 관계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결핍되거나 부적절한 아동들은 이러한 결핍된 경험을 다른 영역에서 충족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어느 한 쪽 관계 체계가 적절히 기능하지 않을 때, 다른 영역의 관계는 보다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복지감에 대해 가족환경과 우정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Gauze, Bukowski, Aquan-Assee, & Sippola, 199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그러한 우정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비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같은 가족관련변인과 청소년의 복지감간에 보다 높은 관계를 보였다. 역으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인 낮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비해, 우정관계가 복지감과 보다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체계와 또래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수준에서의 성차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Stokes와 Levin(1986)에 의하면, 절친한 친구의 숫자와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 후기의 여아들보다 남아들의 외로움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또한 Franzoni와 Davis(1985)는 또래에 대한 자기노출과 외로움간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발견되었으나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친밀하고 보다 배타적인 우정관계를 가지며, 친구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정관계의 주요 특성으로 생각한다(Berndt, 198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전체적인 외로움의 수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남녀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

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또래경험은 청소년의 외로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해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426명(남학생: 210명; 여학생: 216명)이다. 이 연령층을 선정하는 이유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 후기(즉, 대학생)나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를 청소년 초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특히 고등학생들보다는 중학생들 가운데서 많이 발생된다는 국외의 연구결과(Olweus, 1991)와 국내의 신문보도(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에 근거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양친부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에 대한 애착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뢰감(trust)', 그리고 '소원감(alienation)' 등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총 28문항의 척도이다.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신뢰감'은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10개의 문항들을 포함하며, '소원감'은 집에서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에 관한 8개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문항들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 가운데 의사소통, 신뢰감, 그리고 소원감은 각각 .79, .84, 그리고 .76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는 각각 .79, .82, 그리고 .73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 각각에서 9문항씩이 제외되어(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 요인 각각에서 4, 2, 3문항) 최종적으로 19문항씩이 남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1>). 척도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는 .86-.91로서 본 연구의 경우보다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부모에 대한 애착 점수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요인과 신뢰감 요인의 점수를 합한 후 소원감 요인의 점수를 감함으로써 산출되었다.

## 2) 또래경험

또래경험은 Perry 등(1988)이 개발한 MPNI(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 가운데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련된 각 7개의 문항씩 총 14문항을 변안하여, 청소년 자신과 또래에 의해 각각 평가되었다. 자기보고의 경우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들의 예를 들면, 또래공격성은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다,' 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다,' '아이들은 나에게 심술궂게 행동한다' 등이 포함된다.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제외하면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65와 .86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1문항이 제외되어,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각각 7문항과 6문항이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표 1>).

또래평가는 동성 급우들 가운데 각 문항의 내용에 부합되는 급우들의 이름 아래 표시를 하도

록 함으로써 조사되었다. 또래평가의 점수화는 각 문항별로 동성의 급우들로부터 표시된 백분율을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각각 0-700점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에 대해 두 개의 문항에서 총 25명의 급우들 가운데 각각 5명과 10명의 급우들이 또래공격성을 보인다고 표시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이 청소년은 두 개의 문항 각각에서 20점( $5/25 \times 100=20$ )과 40점( $10/25 \times 100=40$ )의 점수를 받게 되고, 또래공격성의 총점은 60점이 된다.

## 3) 청소년의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은 Russell 등(1980)의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것으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와,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 여부와 관련됨). 문항의 예로서,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도 개정 당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alpha=.90$ 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1>).

〈표 1〉 각 척도별 문항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Cronbach's $\alpha$
아버지에 대한 애착	19	
의사소통	6	.85
신뢰감	8	.90
소원감	5	.78
어머니에 대한 애착	19	
의사소통	6	.82
신뢰감	8	.87
소원감	5	.76
또래경험(자기보고)	13	
또래공격성	7	.65
또래에 의한 괴롭힘	6	.86
외로움	20	.90

### 3. 조사절차

학교장의 동의하에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방문하여, 4명의 훈련된 조사원들은 두 명씩 한 조가 되어 각 학급에 들어가 461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양친부모가 아닌 경우 18명 포함)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25-30분 정도이었다.

## Ⅲ. 연구 결과

### 1.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경험 및 외로움에서의 성차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변인들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였다

( $t=2.07, p<.05$ ).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t=.38, p>.05$ ).

또래경험, 즉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자기보고와 또래평가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었다. 또래공격성의 경우, 자기보고( $t=4.02, p<.001$ )와 또래평가( $t=3.72, p<.001$ )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공격성을

나타내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도, 자기보고( $t=5.24, p<.001$ )와 또래평가( $t=3.20, p<.01$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경우

에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41, p>.05$ ).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성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성별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학생(N=210)		여학생(N=216)		t
	M	SD	M	SD	
<b>부모에 대한 애착</b>					
아버지에 대한 애착	28.98	9.94	27.01	9.75	2.07*
어머니에 대한 애착	30.57	8.62	30.25	9.34	.38
<b>또래경험</b>					
또래공격성(자기보고)	2.04	.47	1.87	.41	4.02***
또래공격성(또래평가)	38.43	55.18	22.02	32.66	3.72***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	1.88	.51	1.64	.45	5.24***
또래에 의한 괴롭힘(또래평가)	41.54	69.18	21.17	62.02	3.20**
<b>외로움</b>					
	1.95	.39	1.94	.41	.41

\*  $p<.05$ , \*\*  $p<.01$ , \*\*\*  $p<.001$

##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남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경

험하였다(남학생:  $r=-.43, p<.01$ ; 여학생:  $r=-.31, p<.05$ ).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녀학생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남학생:  $r=-.38, p<.01$ ; 여학생:  $r=-.23, p<.01$ ).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다소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3> 부모에 대한 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외로움	부모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남학생(N=210)	-.43**	-.38**
여학생(N=216)	-.31*	-.23**

\*  $p<.05$ , \*\*  $p<.01$



### 3. 또래경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또래경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또래공격성은 자기보고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또래공격성이 높을수록 남녀학생들은 외로움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학생:  $r=.15, p<.05$ ; 여학생:  $r=.27, p<.01$ ).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자기보

고 및 또래평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남녀학생들은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였다. 자기보고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r=.52(p<.01)$ 과  $r=.56(p<.01)$ 로 보통 정도의 정상관을 보였으며, 또래평가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r=.18(p<.01)$ 과  $r=.22(p<.01)$ 로 약간의 정상관을 보였다. 또래공격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또래경험과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외로움	또래경험			
	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또래평가	자기보고	또래평가
남학생(N=210)	.15*	-.01	.52**	.18**
여학생(N=216)	.27**	-.02	.56**	.22**

\*  $p<.05$ , \*\*  $p<.01$

###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의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상호작용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경험,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에서만 두 가지 경우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각각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호작용은 각각 변량의 38%와 36%를 설명하였다(<표 5>와 <표 6>). 여학생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 각각

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모두 또래로부터 높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보다 외로움과 더욱 강하게 관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에 또래로부터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은 외로움을 덜 경험한 반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수준에 관계없이 여학생들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각 변인의 주효과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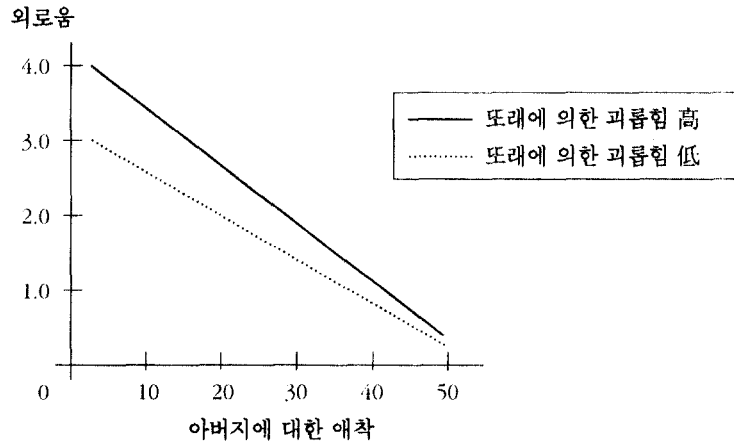
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적이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영향력에서의 성차도 상관

관계 분석결과와 유사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여학생이 보다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표 5〉 외로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남(N=210)		여(N=216)	
	B	$\beta$	B	$\beta$
아버지에 대한 애착(A)	-.01	-.46**	-.09	-.22***
또래에 의한 괴롭힘(B)	.23	.30*	.48	.53***
A × B	.03	.18	-.10	-.12*
상수	1.86		1.40	
R <sup>2</sup>	.35		.3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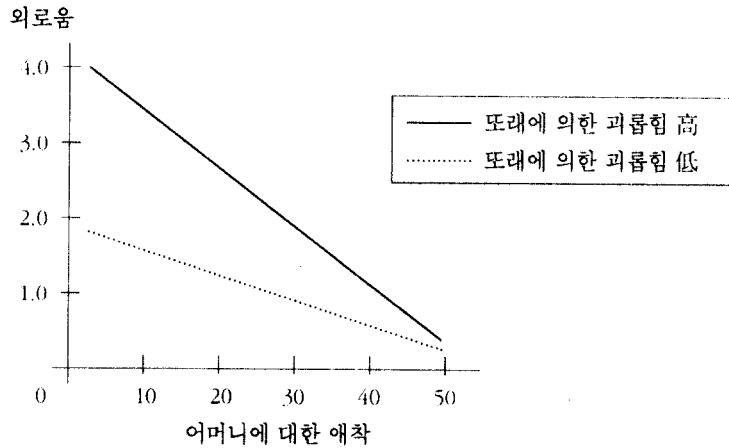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외로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표 6〉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남(N=210)		여(N=216)	
	B	$\beta$	B	$\beta$
어머니에 대한 애착(A)	-.02	-.50**	-.07	-.17**
또래에 의한 괴롭힘(B)	.16	.21*	.50	.55***
A × B	.06	.30	-.01	-.13*
상수	2.00		1.35	
R <sup>2</sup>	.33		.3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외로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정서상태'라고 정의되는 점에 근거(Weiss, 1973)해볼 때,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애착의 정도뿐만 아니라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또래경험은 그들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리라 예측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상태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한 Gauze 등(1996)의 연구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경험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

록 남녀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애착의 질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하게 관련된다 고 보고한 연구결과들(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3)과 일치한다. 또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를 사용하여 애착의 정도와 초기 청소년의 우울감 및 불안감간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 하나의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Papini와 Roggman(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외, 불만족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던 Hojat(198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를 관련시킨 연구들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보다 어린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Arend, Gove, & Sroufe, 1979; Easterbrooks & Lamb, 1979)에서 안정적 애착아들은 불안정 애착아들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었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불안정한 애착아들은 또래관계에서 무능력함을 보이기 쉽고 이러한 무능력감은 외로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이러한 관계를 자유롭게 넘어서 또래와의 성공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Gavin & Furman, 1996). 실제로 대인적응성이나 또래 수용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현심, 1996a; Ladd, 1983).

다음으로,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과 각각 다소 다른 정도로 관련이 있었다. 또래공격성의 경우,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은 미약하나마 외로움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또래공격성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반면에, 또래평가에 의한 또래공격성은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공격성을 대인적응성과 유사한 특성으로 여겨 또래에게 공격적인 아동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로부터 거부되기 때문에 결국 외로움을 경험하리라고 예측하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배경변인 및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 Olweus(1984)가 제시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해아동들은 남아들의 경우 거의 평균정도의 인기도를, 여아의 경우는 평균이상의 인기도를 가지며, 따라서 고도로 공격적인 행동은 또래거부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의 경우 나타난 미약한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또래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는 후속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는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불행함이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현심, 1998; 최보가, 임지영, 1999; Boulton & Underwood, 1992)과 일치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기에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또래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특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왕따' 현상이 청소년의 발달에 얼마나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실제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심하게 거부되거나(Hodges, Malone, & Perry, 1997),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Bukowski, Newcomb, & Hartup, 1996)으로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에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타인에게 가하는 공격적 행동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보다 위축되고 또래로부터 보다 더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자녀관계가 결핍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적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Furman & Buhrmester, 1985; Gauze et al., 1996)에 근거해 살펴본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

착과 또래경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또래경험가운데서도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유의적으로 발견되었다. 즉, 또래로부터 높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들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으면서 높은 수준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역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으면서 또래로부터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은 외로움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 수준이 높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상태를 예측하는 데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암시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성과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나온 점은 흥미롭다. 먼저,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각 변인의 주효과만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중 어느 한 변인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유의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그 관련성의 정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이, 또래경험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는 여학생이 상대 성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양 변인들이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나타낸 다소의 성차와 양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나타난 뚜렷한 성차는 또래관계에서의 성차와 관련시켜 설명이 가능하다.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소수의 보다 친밀한 우정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점(Berndt, 1982)에 근거할 때,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들어 또래관계가 보다 강조되는 것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은 다소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여학생에게는 또래관계가 부모-자녀관계에 비해 보다 더 중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또래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이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그들에게 중시되는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해석된다.(실제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표 5>와 <표 6>)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가운데 남학생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지라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경험할 때 외로움도 덜 경험하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또래경험을 자기보고와 또래평가에 의해 측정된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 외에도 또래공격성과 외로움간에 나타난 평가자에 따른 차이 역시 성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관적인 것은 자기보고의 경우 또래평가의 경우보다 보다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외로움 역시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자로 인해 상관관계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래평가가 지닌 상대적인 제한성을 통해 설명

이 가능하다. 즉, 또래공격성이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경험에 대해 또래들은 단지 주변에서 관찰되는 정도에 준하여 평가를 하는 반면에 아동 자신은 스스로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1970년대 이래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는 Olweus(1991)는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유용한 평가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평가방법인 PNI를 측정하는 방식에 근거할 수도 있다. PNI를 실시할 때, 조사자들은 연구대상자들에게 한 학급원들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에 X표시를 한 후 급우들에 대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의 사적인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청소년 자신들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행동들에 대해 또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관대하게 평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이를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척도로서 사용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써 애착의 유형과 같은 애착의 질 대신 애착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애

착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하였듯이, 외로움 자체의 성차 보다는 외로움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성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예상했던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아동의 발달을 연구할 때 어떠한 변인들을 다루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으나, 남아와 여아를 통합한 분석에서는 어느 한 성에만 관련된 결과를 양성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의 행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오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과 높은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경험이 그들의 부정적 정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교내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는 청소년 초기에도 부모-자녀관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과 같은 프로그램과 후속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a).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1996b).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Allen, J., Moore, C., Kuperminc, G., & Bell, K.(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rend, R., Gove, R., & Sroufe, L. A.(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7.
- Asher, S. R., Park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Y: Cambridge Univ.
- Asher, S. R., & Wheeler, V. A.(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oulton, M.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T.(1982). Loneliness in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69-290). NY: Wiley-Interscience.
- Bukowski, W., Newcomb, A., & Hartup, 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lune, G. J.(1977). Disclosure flexibility and social-situ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39-1143.
- Chelune, G. J.(1979). *Disclosure flexibility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September.

- Easterbrooks, M. A. & Lamb, M. E.(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380-387.
- Franzoni, S. L., & Davis, M. H.(1985).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loneliness: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68-780.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vin, L. A., & Furman, W.(1996). Adolescent girls' relationships with mothers and best friends. *Child Development*, 67, 375-386.
- Gauze, G., Bukowski, W., Aquan-Assee, J., & Sippola(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 2201-2216.
- Gilbert, E. & DeBlasie, R.(1984). Anorexia nervosa: Adolescent starvation by choice. *Adolescence*, 19, 839-84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odges, E., Malone, M. & Perry, D.(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jat, M.(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Jones, W. H., Freeman, J. A., & Goswick, R. A.(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 27-48.
- Kaiser, C. & Berndt, D.(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he gifted adol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 Ladd, G. W.(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tings. *Merrill-Palmer Quarterly*, 29, 283-307.
- Marcoen, A., & Brumagne, M.(1985). Loneliness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25-1031.
- Muuss, R.(1986). Adolescent eating disorder: Bulimia. *Adolescence*, 21, 257-267.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pp. 57-76).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au,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strov, E. & Offer, D.(1978). Loneliness and the adolescent. In S. Feinstein(Ed.), *Adolescent Psycholog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Papini, D., & Roggman, L.(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420-44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1980).



-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1978). Developing a measurement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Shaver, P. & Rubenstein, C.(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pp. 42-73).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olano, C. H. & Parish, E.(1979). *Loneliness and perceived level of self-disclosure*. Unpublished manuscript, Wake Forest Univ.
- Stokes, J., & Levin, I.(1986).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ng loneliness from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69-1074.
- Tabachnick, N.(1981).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Cambridge, MA.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iss, R. S.(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A. Peplau and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71-80). New York: Wiley.